

서울대 사회학과 소식지

VOL
10
2012학년도
2학기

**DEPARTMENT OF
SOCIOLOGY,
SNU
NEWSLETTER**

[http://
sociology.snu.
ac.kr](http://sociology.snu.ac.kr)



201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박사 2명 등 16명의 졸업생 배출



2011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선발

2011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 박사과정 |

김대욱, 박상희 등 총 2명

| 석사과정 |

최정배, 이준태, 김동현, 공준환, 김학준,
김윤애(북한), 장문정(중국),
진선선(중국) 등 총 8명

201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박사 2명 등 16명의 졸업생 배출

201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8월 29일(수) 오후 2시 사회대 312호에서 열렸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8명, 석사 6명, 박사 2명 총 16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학사 졸업생 중 성적 우수자에게 주어지는 상백우등상은 공준환(학부 · 06), 우수논문제출자에게 주어지는 상백논문상은 배민신(학부 · 03)이 수여받았다. 동문회장상은 사회봉사 및 대외활동에 두각을 나타낸 점이 인정되어 박준규(학부 · 04)에게 수여되었다.

“2011학년도 후기 대학원 졸업생 명단과 논문제목은 다음과 같다.”

박사학위 논문

오현미 : “진화론에 대한 페미니즘의 비판과 수용: 성차 개념을 중심으로”(지도교수: 정진성)

주윤정 : “한국 시각장애인의 직업권 형성에 관한 법사회학적 연구”(지도교수: 박명규)

석사학위 논문

김건우 : “루만의 ‘사회적 질서’의 문제의 해명에 관한 연구”(지도교수: 김홍중)

전기훈 : “Cultural Divergence in the relation with the Effect of Income and Social Indicators on the Subjective Well-being”(지도교수: 장덕진)

김대욱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권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지도교수: 정진성)

김미선 : “20 · 30대 기혼여성의 일의 의미 변화와 일과 가정의 양립전략”(지도교수: 박경숙)

조홍진 : “기업집단의 계열 분리 및 승계에 관한 연구: 1989-2010년 한국의 사례”(지도교수: 장덕진)

지현정 : “국내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 요인에 관한 연구”(지도교수: 장경섭)

전공연수회

학부행사

우리 학과에 새로 진입한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공연수회가 2012년 4월 27일(금)과 28일(토)간 열렸다. 첫째 날은 정인관(석사졸업), 서형준(석사 · 08)의 안내로 태안오염사고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특강 및 의항리 마을탐방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오리엔테이션 행사가 열렸다. 둘째 날에는 천리포수목원을 관람했다. 이번 학기에는 총 29명의 학부 학생이 새로 진입하였고, 전공연수회에는 30여명의 학부학생들과 이재열 학과장과 박경숙 · 학부주임과 정근식 · 정일균 교수 및 조교들이 참여하였다. 다음은 조민서(학부 · 11)의 참가기이다.



전공연수회 후기 | 조민서(학부 · 11)

4월 27, 28일 양일간 태안에서 진행되었던 전공연수회, 그 후의 기억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고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선배들과의 대화, 그리고 유난히도 길었던 사회학과 사람들과의 밤. 사회학이란 도대체 무엇일, 왜 연구하는 학문인가. 이전부터 배움을 지망해왔던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려웠던 질문, 어쩌면 정해진 답이 없을지도 모르는 이 질문에 대해 태안 숙소에 짐을 풀고 난 직후 있었던 선배들과의 대화는 하나의 대답으로 다가왔다. 선배들이 들려준 2007년 태안의 비극과 그 이후의 이야기는 5년 전 한 중학생에게 박제된 기억으로 남아있는 태안의 이야기와 같으면서도 달랐다. 박제된 기억 속에는 대규모의 기름 유출과 정부당국의 조치, 그리고 무엇보다 크게 보도되었던 거대한 자원봉사자들의 물결이 선명한 이미지로 남아있었다. 똑같은 사건을 목도한 선배 사회학자들의 시야에는 그 모든 현상들의 이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들과 다기한 주체들이 있었다. 2007년의 태안은 조직화된 무책임성이 만연한 공간이었다. 기름유출이라는 사건 언저리에는 자사의 이미지를 더럽히지 않으면서 보상은 최소화하려는 자본이, 주민들의 피해를 면밀하게 사정하지 않는 정부 당국이, 그 와중에 분열을 경험하는 마을공동체가, 그리고 그 중심에 경제적, 문화적인 삶의 터전을 상실한 주민들이 있었다. 재난에 삶이 휩쓸린 이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의 삶에 찾아온 변화를 담담하면서도 울림이 있게 기술하는 선배 사회학자들의 연구는 잔잔한 감명을 주었다. 연구를 진행한 마을을 직접 돌아보고 나서 어두워진 후 사회학과 사람들 간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사회대 모임방식의 특성상 일상에서 만나기도 그리 쉽지 않던 이들, 그러나 같은 학문에 몸담고 있는 이들과의 대화는 흥미로우면서도 행복한 경험이었다. 사회학에 대해, 사회학과에 대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대해 나눈 얘기들은 서로 다르면서도 교차하는 지점들이 있었다. 학문적 동질감 내지는 사회학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동일성을 느낄 수 있었다면 아마 그 지점들에서였을 것이다. 짧지만 길었던 1박 2일의 전공연수회는 기대 이상으로 우리의 학문과 학문공동체에 대한 사유를 촉발하는 계기이자 공동체의 일원임을 경험했던 소중한 기회였다. 뜻 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발전기금을 출연해주신 동문분들께 감사드린다.

서울대-큐슈대 워크숍

제5회 서울대학교-큐슈대학교 국제학술교류 워크숍 〈기억과 표상으로 읽는 동아시아의 20세기〉



7월 28일(토)부터 7월 29일(일) 2일 간에 걸쳐 서울대 16동 427호에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 큐슈대학교 비교문화학부 학술교류회가 진행되었다. 올해로 5회째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 행사들과 마찬가지로 〈기억과 표상으로 읽는 동아시아의 20세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재열 교수의 환영사와 함께 시작된 이 행사에서는 양 대학 대학원생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워크숍 이후에는 그간의 교류행사들의 성과들을 책으로 출판하기로 했다. 우리 학과의 발표자의 명단과 발표제목은 다음과 같다. 참가자 중 김보미(박사 · 12)가 참가기를 보내왔다.

권동국(박사 · 10)	식민지 공민교육의 이념과 경계 : 1930년대 조선중등공민교육을 중심으로
사토 아키히토(박사수료)	재한교교와 냉전 - 동아시아 냉전과 한국 내 사회통제 및 배제의 연관
김보미(박사 · 12)	해방직후~한국전쟁기(1945~1953) '서울'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공간: 탈식민-전후 국가건설을 위한 도시 기획을 중심으로
김은혜(박사수료)	아시아 개발주의의 원(原) 풍경: 수풍담 이미지
손준우(석사과정 · 10)	반공 웅변과 이름 부름의 정치 - 1960~1970년대 한국 웅변과 반공주의
박해남(박사수료)	식민지 전시체제기의 중등학교 - 동원, 저항, 주체성



워크숍 후기 | 김보미(박사 · 12)

올해 5회 째를 맞은 큐슈대와의 학술교류회는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학술교류회는 학과장이신 이재열 교수님의 개회사로 시작하였고, 박명규 교수님과 정근식 교수님을 비롯한 서울대와 큐슈대의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다섯 번째 학술교류회를 무사히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나누어 주셨다. 한편, 인사와 소개가 오가는 동안 다소 경직되었던 분위기는 학술교류회의 성격과 관련하여 당부의 말을 전하던 사토 선배의 말에 돌연 화기애애해 졌다. 그 요지만 보면 ‘서로 미래의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을 아끼지 말고, 도움이 되는 코멘트를 많이 하자’는 것이었는데, 친근하지만 비공식적이었던 표현 때문에 그 말은 올해 학술교류회의 유행어가 되었다. 당부의 말 덕분인지, 발표와 토론은 시종일관 진지하고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발표장에서 들었던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나왔던 코멘트이자 인상 깊었던 말은 ‘연구 대상을 보는 시각을 넓히라’는 주문이었다. 개별 연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그 주제에 빠져 허우적대다 보면, 이 연구를 왜 하는지, 이 연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간과하게 될 경우가 많다. 이것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따라서 흔히 듣게 되는 코멘트이지만, 이번 학술교류회에서는 그 의미가 더 각별하게 느껴졌다. 앞서 나열한 것처럼 다양한 주제를 다룬 논문들이 그 확장을 통해 20세기 동아시아의 기억과 표상이라는 주제 아래에

여일 수 있었고, 역으로 다른 주제의 논문들의 도움을 빌어 비로소 한 연구의 내연과 외포 또한 확장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학술교류회가 아니었으면 이루지 못했을 성과였다. 발표가 끝나고 저녁 시간 동안에는 식사를 하면서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작년 큐슈에서 열린 학술교류회에 참가했던 선배들이 융숭한 대접을 받았던 데에 비해 우리가 준비한 자리가 너무 약소하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 학과 발전기금과 박명규 선생님의 지원을 받아 행사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제학술교류를 치르는 데에는 여전히 더 많은 금전적, 행정적 도움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잘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큐슈대와의 학술교류회는 교류의 성과를 한국과 일본에서 책으로 함께 출간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드디어 올해 말부터 출판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수년 간 교류행사 준비부터 논문 번역까지 대부분 사토 선배가 혼자 책임지고 일하고 있는 형국이었고, 지원 부족으로 인해 출판 작업도 그런 방식으로 일이 진행될 것 같아 우려된다. 지금 당장에는 사토 선배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서 개인적인 문제 같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학술교류의 질이나 위상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학술교류라는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는 금전적, 행정적 지원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회발전연구소 소식

사회발전연구소- SBS 정책 대 정책 포럼 진행

사회발전연구소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주요 사회정책의 전환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SBS와 공동으로 2012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매달 6차에 걸쳐 사회대 국제회의실에서 〈정책 대 정책 포럼〉을 진행했다. 장덕진 소장은 “이 포럼은 주요 사회정책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을 매회 2명씩 초청하여 각자가 가진 정책 대안과 근거, 그리고 효과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자리이다. 어느 한 쪽의 정책적 견해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견해를 균형 있게 청취함으로써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포럼의 결과물 또한 연중에 단행본으로 출간될 것이며, 내년부터 본격화될 정책 전환에 훌륭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포럼의 주제 및 발표자 명단이다.

복지: 1월 31일

- 고영선(KDI): “OECD 국가 채무와 복지재정의 상관성”
- 양재진(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유럽 복지국가에 비추어 본 한국복지국가의 현재와 발전전략”
- 신기철(숭실대학교 정보통계 · 보험수리학과), “유럽의 재정위기 국가의 주요 특징과 우리나라 사회보험재정에 주는 시사점”

경제 민주화: 3월 6일

- 조동근(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민주화, 국가 개입주의의 사다리인가?”
- 김진방(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복지재정: 3월 30일

-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전 보건사회연구원장):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방향”
- 윤홍식(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복지국가의 조세체제를 통해 본 한국조세체제의 과제”

민영화: 4월 30일

- 선대인(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 “국내민영화 및 민자사업의 실태 진단”
- 이재훈(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철도운송사업 경쟁도입”

노동: 5월 30일

-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새정부의 노동정책 과제”
- 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양극화와 정책과제”

성장동력: 6월 26일

- 정태인(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지속가능한 사회국가의 전략”
- 고영선(KDI 본부장):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

한-터 민주화워크샵 개최

사회발전연구소는 2012년 5월 15일, 서울대학교 63동 304호에서 “한국과 터키에서의 민주주의와 사회갈등”을 주제로 워크샵을 가졌다. 장덕진 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 행사에서 Cemal Uşak(터키 기자 작가 재단 부단장), Bülent Keneş(Today’s Zaman 신문사 편집국장), Tuncay Güloğlu(알로와대 노동경제 · 노사관계학과 교수) 등이 발표했고, 사회학과의 송호근 교수가 “박경리와 오르한 파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사회발전연구소는 2007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중점연구소로 지정되어 [사회발전과 사회의 질]에 대한 연구 총 9년 중 5년차 과제를 진행 중이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단계를 수행을 했고, 지금은 2단계의 2년차 마무리에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유럽에서 진행된 삶의 질 연구가 개인적인 차원에만 집중했다는 한계와 사회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가 GNP 등의 경제지표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에 착안하여 시작되었다. 여러 가지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측면의 구조적인 요소들을 다 포함을 해서 그 사회를 평가하기 위해 사회발전연구소의 사회의 질 연구는 사회의 질을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한다 (그림 참조). 이 4개의 영역을 준거틀로 1단계 3년 동안 사회발전연구소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8개 지역에 대한 사회적 질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 2단계에서는 연구범위를 OECD 국가들로 확대하고, 지표 중심의 양적 연구에 질적 연구나 역사적 연구를 추가하는 식으로 연구가 발전해가고 있다. 또한, SQ 연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다중격차 사회의 사회통합 방안]에 대한 연구로 SSK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작년부터 사회발전연구소와 SBS는 10년간 MOU를 체결하고 연구소의 중점 사업인 [사회의 질] 연구를 SBS의 중점 공익사업으로 삼기로 하고 매년 연구협력을 진행 중이다. 연구결과는 매년 11월초 SBS의 연간 최대 기획인 [미래한국리포트]의 본 행사를 통해 생방송되며, 뉴스, 다큐멘터리, 토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방송된다. 작년에는 SBS와 공동으로 한국 지방자치 단체의 사회적 질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지역사회 수준에서 사회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에 국가 수준에서 개발된 사회의 질 지표들을 그대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연구팀은 기존의 지역발전지표 및 통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사회의 질 개념 틀에 입각하여 지역사회 간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을 선별하여 지표체계를 구성했다. 이 지표체계를 바탕으로 230개 가량의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했다. 당시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많은 언론과 정치권 등의 주목을 받았다.

올해의 경우 중점연구사업과 SSK 사업, 그리고 SBS 지원의 시너지 효과에 힘입어 남유럽을 중심으로 한 5개국 비교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이를 위해 한국, 그리스, 이태리, 독일, 터키 등 5개 국가에 대해 2012년 5월 중에 각각 서베이를 실시하여 비교 데이터를 완성하였으며, 7월 중에 연구진이 유럽 4개국을 방문하여 약 50명의 각계 전문가와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연구소는 이 연구 성과를 묶어 단행본으로 출간하게 되며, 남유럽 경제위기의 사회학적 측면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사회발전연구소의 이러한 성과들은 매년 2학기 때 대학원에서 사회의 질 수업을 통해 공유되고 발전된다. 이 수업은 사회학과뿐만 아니라 보건 및 타학과 학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SQ에 참여하는 박사급 연구원들이 자신의 전공영역을 중심으로 강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SQ 연구의 진행상황과 SQ의 몇 가지 영역들에 관련된 지표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이 어떻게 연구가 되었는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수업, 다른 기관과의 공동연구, 연구진 내부에서의 작업을 통한 연구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소식

김홍중 교수는 두 권의 책에 글을 실은 바 있으며, 세 편의 논문을 출판했다. “미완의 고찰: 발터 벤야민, 『아케이드 프로젝트』 (1982)”, 전재성 외. 『사회과학명저 재발견 3』,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공저) “제9장 공간의 생산, 재현, 그리고 체험”. 박선웅 외. 『문화사회학』, 살림. (공저) 논문으로는, “소명으로서의 분열 - 〈사당동 더하기 22〉가 사회학에 제기하는 문제들”. 『문화와 사회』(12). “Modernité vaporeuse et imagination détruisante”. Sociétés, N° 115. “미래의 미래” 『문학 동네』 71호(여름호)가 있다. 더불어 7월 21일 충남대에서 열린 비판사회학회 하계워크숍에서 “미래의 미래-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사회적인 것”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박경숙 교수는 두 편의 논문을 출판했다. “경제 위기 전후 북한 주민의 사망률 동태의 특성과 변화”를 『한국인구학』(35/1)에, “북한의 식량난 및 기근과 인구변동”을 『통일정책연구』(21/1)에 실었다. 5월부터는 사회통합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세대갈등의 원인과 대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인구와 국가, 사회에 관한 단행본이 서울대학교출판부에서 곧 출간될 예정이다.

박명규 교수는 통일평화연구원장으로 있으며, 『남북 경계선의 사회학 : 포스트-김정일 시대의 통일평화 구상』(창작과비평사,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학술도서)을 출간했다. 더불어 『연성북한통일론- 21세기 통일방안구상』(통일평화연구원)에서 출간한바 있으며, “근대 한국의 ‘사회’ 개념 수용과 문명론적 함의”를 『개념의 번역과 창조- 개념사로 본 동아시아 근대』(박노자 외 지음, 돌베개)에 실은 바 있다. 발표로는, “Inter-Korean relations and unification issue in Korea”를 미국에서 열린 ISA 국제회의(4/1)에서, “Civility and Emotionology in Modern Korea”를 오슬로 대학이 주최한 학술회의(‘Civility and History of Emotion’)(6/14)에서, “Configruation on Peacelessness in Korean Peninsula”를 통일평화연구원 개최 국제학술대회(7/25)에서 발표했다. 더불어, 독일 튀빙겐 대학의 초청(‘Korean Studies Week’)을 받아 강연(“Inter-Korean Relation and North Korean Issues”)(6/19)하였으며, 국제개념사학회(8/23, 헬싱키)에서 기조강연(“Conceptual History in Korea: Development and Its Prospects”)을 한바 있다.

배은경 교수는 여성학협동과정주임을 맡고 있다. 『여성주의 고전을 읽는다』(한길사)의 한 장을 집필했으며, 박사학위논문을 보완하여 『현대 한국의 인간 재생산 - 여성, 모성, 가족계획사업』(시간여행)으로 출간했다. 더불어 ‘SSK 인간재생산연구’사업단에 참여하면서,

“여성운동으로서의 출산통제운동: 1950년대 한국의 경험”을 ‘인간재생산사업단’이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아시아의 출산과 모성: 지역적 경험의 지구적 고찰’)(4/27)에서 발표했다.

서이종 교수는 정보화진흥원 정보정책 전문위원장과 한국 기관생명윤리위원회협의회(KAIRB)의 사회과학/행동과학 전문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사회학”, “사이버민주주의 비교연구”, “태동하는 생명사회와 생명윤리” “Social Origin of Bioethics” 등을 연구하고 있다.

송호근 교수는 작년에 발간되어 호평을 받은바 있는 『인민의 탄생』의 후속작 집필에 전념하고 있다.

임현진 교수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3월부터 경실련 공동대표를 맡았다. 논문으로는, “World Economic Forum”을 Wiley-Blackwell Encyclopedia of Globalization(2012)에 실었다. 발표로는, “공공사회학에 바란다: 공공성의 일상적 구성과 지속적 실천을 위하여”를 한국공공사회학회 학술대회(2/2)에서, “한국의 NGOs: 현황, 과제 및 전망”을 과실련 조찬포럼(2/29)에서, “What Comes after the Development State in Korea?”와 “Globalization, Regional Production Networks and Divergent Development Paths in East Asia: The Case of Mobile Phone Manufacturing”(이준구 교수와 공동)을 미국에서 열린 SASE’s 24th Annual Conference(6/28-6/30)에서 발표했다. 『지구시민사회의 구조와 역학: 이론과 실제』(나남)가 곧 출간될 예정이다.

장경섭 교수는 논문 “압축산업화 시대 노동계급가족 가부장제의 물질적 모순”(최선영과 공저) 『한국사회학』(46권2호)에 실었으며, Citizenship Studies(16권1호)의 특별호 (“South Korea: Politics and Culture of Citizenship”)를 편집했다.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Developmental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를 Bryan S. Turner와 공동 편집했으며, Ben Fine, Linda Weiss와 공편한 저서 Developmental politics in transition가 곧 출간될 예정이다. 더불어, 워싱턴 대학 한국학연구센터 (“Encountering Foreign Brides as Cosmopolitan Others: A Citizenship Perspective on Transnational Marriages in Rural Korea”)(3/7), 홍콩대학 응용사회학부(“Sociology of Compressed Modernity: Individual, National, and Cosmopolitan Imperatives”)(3/22), 뉴욕대학 사회학과 (“Developmental Citizenship and Its Discontents”)(4/27)에서 초청강연을 했다.

장덕진 교수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연구 활동으로는, “17대 국회 법안표결의 정치경제학”(김란우, 박기웅과 공저) 『한국사회학』 46(1)에 실었다.	을 출간했다. “한국사회의 동향과 발전방향: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를 통계청 경제사회통계발전포럼(5/17)에서, “Between Protection and Resilience: Korean Social Policy after the Financial Crises”를 Shanghai Forum(5/27)에서,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공동체,” 아산재단-아산나눔재단 공동심포지엄(6/21)에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우리의 준비 수준은?”을 제 1회 KISTEP미래포럼(‘우리의 미래사회 위험관리 역량, 어디까지 왔나’)(6/26)에서 발표했다.
정일균 교수는 논문 “갑오개혁기 정부의 관리등용제도”를 〈사회와 역사〉(제94집)에, “〈茶山 丁若鏞의 ‘小學’論(Ⅱ): 〈兒學編〉을 중심으로”를 〈다산학〉(제20호)에, “正祖의 〈孟子〉論(Ⅰ): 〈鄒書春記〉를 중심으로”를 〈한국실학연구〉(제23호)에 실었다. 더불어 논문 “茶山 丁若鏞의 ‘公文書制度’ 改革論(Ⅰ): ‘縱橫表’를 중심으로”를 ‘다산 연구의 새로운 모색’(다산탄신 250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1950/60년대 ‘근대화’와 다산 호출”을 ‘시대의 답을 다산에게 묻다: 다산 정약용과 한국의 사회/인문과학’(다산탄신 25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한신갑 교수는 2012년부터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의 편집위원 임기를 시작했고, 3월에는 사회과학도서관 및 사회과학정보센터장에 취임했다. 8월에는 Denver에서 열리는 ASA에 참가하여, 편집위원으로 있는 Sociological Methodology의 편집위원회에 참석했다. 연구 활동으로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Lausanne Conference on Sequence Analysis (LaCOSA)〉(6/6-6/8)에서 논문 “Motif of Sequence, Motif in Sequence”를 발표했으며, NIMS 주최로 KAIST에서 개최되는 제2회 〈소셜 네트워크 분석기법 여름학교〉(8/22-8/24)를 공동으로 조직하고, “What is SOCIAL about social network analysis?”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새로운 사회운동 방식을 통한 집단기억의 형성과 유지: 스누라이프에서의 태그달기”를 『기억과 전망』 26호(여름호)에 실었다.
정진성 교수는 2012년 7월 20일부로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초대 소장으로 취임하였으며, 현재 여성학회장을 맡고 있다. 8월에는 UN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에 참여한 바 있다. 논문 “‘재일동포’호칭의 역사성과 현재성”을 『일본비평』(6호)에 실었다.	
이재열 교수는 학과장을 맡고 있다. 『한국기업과 사회의 경쟁력』(공저, 서울대 출판문화원)(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과 『저출산 고령화와 삶의 질 I』(공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교수님 소식

12년 7월 신용하 명예교수와 한상복 명예교수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학부소식

학부 학술동아리 <Co-Sociology>소개 ● 문의 : 김은지 (010-9525-6741)	
Co-Sociology(이하 “코쏘”)는 사회학과 소속의 사회학 고전/명저 읽기 학회로, 맑스나 베버 등의 고전 사회학자들의 저서들 그리고 우리와 동시대의 저작이지만 고전적 저술로 인정받고 있는 책들을 함께 읽고 있다. 작년 겨울방학에는 막스 베버의『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올 1학기에는 부르디외의『구별짓기』를, 그리고 이번 여름방학에는 ‘젠더와 남성’을 주제로 다양한 논문들을 읽는 세미나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코쏘의 목적이 반드시 ‘고전/명저읽기’라는 학술적 활동에만 머무르지는 않는다. 코쏘의 더 중요한 목적은, 학부제 시행 이후로 무너져버린 학과 내 학생 공동체를 다시 한 번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표현은 거창한듯 하나 실은 같은 과에 누가 있는지 알고 지내고 여럿이 모여 놀러 다니고 이야기도 나누며 대학생활을 즐겁게 해 보자는 소박한 이야기이다. 그렇기에 코쏘는 학회 및 뒷풀이, 개강파티 중강파티 그리고 방학중 떠나는 TS, 소풍 등을 통해 구성원들 간의 친목을 다지기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코쏘는 사회학에 학문적으로 관심있는 학생들이든 사회학과 학생들과 관계맺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세미나라고 할 수 있다.	

학과 단신

흙커밍데이 행사
2012년 사회학과 흙커밍데이 행사가 지난 6월 6일(월) 우리 학교 교수회관 진디밭에서 열렸다. 흙커밍데이 행사 가운데 동문건기대회는 매년 열리는 행사로 전체 동문들이 참석하는 뜻 깊은 자리이다. 참석자들은 체육대회와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도시락과 사회학 재개
2012년 2월부터 도시락과 사회학 행사가 재개되었다. 도시락과 사회학은 같이 점심식사를 하면서 대학원생들이 자유롭게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는 행사이다. 이번 학기 도시락과 사회학이 열린 날짜와 발표자들 및 발표제목은 아래와 같다.
윤종석(박사·10) : ‘중국에서 부상하고 있는 계급 계층’ 연구에 대한 리뷰 : 사영(私營)기업가 계층, 중산층, 노동계급 – 2월 23일
이상직(석사졸업) : 노숙인 지원체계의 사회적 기능 : 시설실무자와 대상자간 역할관계를 중심으로 – 3월 22일
곽귀병(석사·10) : 전통적 기억투쟁의 민족적 기억들로의 전환 – 조선시대 세조의 즉위와 단종의 선위를 다룬 역사소설 – 4월 26일
양보람(석사·11) : 서울의 도시화 과정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 경향 연구 : 1972년 이후 미국 도시화에 관한 데이비드 하비의 연구를 바탕으로 – 5월 24일

외국인 글쓰기 지원 장학생 제도 지속

우리 학과 대학원에 외국인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어 글쓰기를 지원하는 장학생 제도가 2009년 11월에 신설되었다. 외국인 글쓰기 지원 장학생은 매 학기 2명씩 선정되며,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학기 중 이들이 작성한 과제물을 함께 읽고 교정 및 조언을 해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다음 학기 장학생 선정은 9월에 결정된다.
--

박사 프로포절 발표회

2010년 2학기부터 시작된 박사 프로포절 공개발표회가 이번 학기에도 계속되었다. 발표자들의 명단과 발표제목은 아래와 같다.
홍주환 : “한국 공무원 노동조합 운동의 형성 및 전락변화에 관한 연구: 정부조직에서 노사관계 제도의 노조전략 분화 및 수렴 효과” (지도교수: 송호근) – 5월 9일
김인수 : “일제하 조선에서 지식국가의 성립과 해체와 관한 연구: 식민지 농정통계와 사회과학의 의미” (지도교수: 정진성) – 5월 29일

2012학년도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장학생 선발

2012년 서울대학교에서 기초학문분야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학업 지원을 통하여 향후 이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이끌 우수한 학문후속세대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학문후속세대 장학금이 신설되었다. 이 장학금은 박사과정 수학기원(A), 박사과정 수료지원(B)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과에서는 A 프로그램에서는 김정환(박사 12), B 프로그램에서는 백광열(박사수료)이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다.

조교실 소식

이상직 대학원 담당 조교와 박우경 국제화 담당 조교의 임기가 2012년 2월 29일부로 끝난다. 2학기부터는 오하나(석사졸업) 신입 조교가 이상직 전임 조교를 대신하여 대학원 담당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국제화 담당 업무는 현지수(university of washington, 국제학과 석사졸업) 신입 조교가 박우경 전임 조교를 대신한다. 유현미 학부 조교는 담당 업무를 계속 이어간다.

19대 국회 은수미 의원 인터뷰

이번 19대 국회에 서울대 사회학과 동문 중 민주통합당 신경민, 유인태, 은수미, 이해찬 의원이 당선되었다. 이 중 은수미 국회의원은 노동운동 경험, 사회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노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특이한 이력으로 주목받았고, 19대 당선자 사이에서 ‘최대의 기대주’로 뽑히는 등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 2012년 8월 16일(목), 박귀병(석사·10), 류연미(석사·12), 윤종석(박사·10)이 은수미 의원실을 찾아가 은수미 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편집자 많이 바빠 보인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은수미 이명박 정부 들어서 노사관계 현장이 많이 무너졌다. 예를 들어 쌍용차의 경우 22명이 돌아가셨고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 같은 비정규직 문제로 지금 현장 상황이 그렇고, SJM이나 만도 이런 데는 아예 사측이 동원한 폭력 세력이 현장을 짓밟은 상태이다. 연락이 많이 오고 저희도 자주 가게 된다. 그래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노동권이 어떻게 유린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국회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헌법상의 노동권을 복원시킬 수 있는지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첫 번째다. 두 번째로는 이미 임시국회가 있었고 곧 8월 결산심의가 있고 이후에는 정기국회,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심의 등이 있어서 그 준비를 해야 한다. 그 다음은 제가 문재인 캠프에 들어갔다. 어쨌든 야권 후보를 통해서 대선 승리를 하는 게 저의 간절한 꿈이다. 문재인 캠프에서 주로 노동정책,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정책을 만들고 조언을 드리는 일 등을 한다. 기타 등등의 일로 월화수목금금금이다. 토요일, 일요일에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다.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스파이더맨>이랑 <다크나이트 라이즈>, <두 개의 문> 세 개 봤다. 아, 그리고 보니 SJM 동영상도 봤다. 제가 옛날에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 정도 영화를 봤고, 발레도 보고 오페라도 가서 구경하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못한다. 심지어 책도 못 읽는다. 그런 와중에 책 내려고 열심히 쓰고 있다. 의원이 되기 전에 출판사에서 노동문제에 관한 책을 쓰자고 작년에 제안이 들어왔다. 작년 말부터 쓰고 원래는 4월쯤에 끝이 나서 5~6월쯤에는 내려는 거였는데 갑자기 제가 의원이 되어서 일정이 어그러졌다. 늦추고 늦추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8월에 써서 10월쯤에 내려고 한다. 노동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노동의 현실뿐만 아니라 그 대책까지 포함한 매우 평범하고 재밌는 대중서를 낼 계획이다.

편집자 책을 쓰는 와중에 뜬금없이 국회의원이 되었다.

은수미 운명인 것 같다. 정말 사람들이 잘 안 만나본데 (국회의원에 대해) 생각해보는 적은 없다. 물론 제가 있었던 곳 (한국노동연구원)이 정부출연기관으로 항상 정책을 다루는 곳은

맞다. 이게 일반 아카데미하고는 좀 다르다. 예를 들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노동을 보면 이 집단과 저 집단의 임금격차가 어느 정도고 그 격차를 잘 드러낼 수 있는 통계 방정식은 무엇인가 등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은, 임금격차가 있다, 원인이 무엇인가, 그럼 이걸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하나, 외국에는 어떤 정책이 있나, 실제 우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뭘까 등으로 정책적 틀로 생각한다. 또 그것이 입법화된다고 생각하면 국회에 맞게 그런 정책을 제기하기 때문에 사실 정치권과 훨씬 더 긴밀하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비정규 문제를 다루어왔다. 정치권에서 노동정책에 대한 브리핑도 많이 요청해왔고 꽤 많은 대선주자 혹은 대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그동안 많이 만나왔다. 그런데 정작 제가 정치할 거란 생각은 못했다. 정말 난데없이 제안이 들어왔다. 제안을 한 사람이 간절하기도 했으나 저도 그 제안을 받는 순간 내가 되게 간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도 그런데 정권을 바꿔야한다는 간절함이 컸다. 특히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민주노동층에서도 강한 금속노조의 그 남자들이 우는 걸 보면 가슴이 무너진다. 그 정도로 상황이 힘들다. 그 다음에 저 자신도 좌절을 많이 겪었다. 노동연구원이 (정권에) 밀보여서. 저 같은 경우 해고 일순위이기도 했고 2009년부터 끊임없이 정권과 싸울 수밖에 없었다. 과거에 노동연구원의 가장 큰 장점은 서로 다른 입장이라도 그냥 존중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한 입장이 아니면 나가라는 식으로 되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동료들도 그건 인정할 수 없었다.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억압을 받게 되고 구조조정 당하고 임금삭감 당하고 끊임없이 싸워야 했다. 그런데 내가 이번에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우리는 그래도 참 별거 아니었구나 싶다. 그래도 우리는 정부출연기관이고 박사들이었고 화이트칼라였기 때문에 용역투입을 한 건 아니니까. 그런 걸 계속 당해왔었는지 뭔가 아주 간절하게 제안이 들어온 순간, 예스라고 했다. 물론 주변에 한번은 꼭 물어본다. 그래서 이게 “나의 개인적 욕심이다.”라고 대답을 했더라면 안했을 거다. 그런데 친구들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다. 저는 그 친구들을 아주 많이 신뢰한다. 그 친구들 모두 국회에 나가는게 순리라고 말할 때, ‘그게 순리겠거니.’하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된 거다.

편집자 노동연구원에 있으면서 정치랑 가까워졌다고 했다.

석사나 박사논문이 실천 내지 정치에 대한 욕구와 결합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나?

은수미 그렇지는 않았다 전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운동을 해서 35살까지 15년을 운동을 했다. 그 중 6년 정도는 감옥에 있었고. (운동을) 15년을 하고 (감옥에서) 딱 나오니 35살이었다. 대학을 그때 졸업을 못했고 심지어 운전면허증도 없었다. 그 당시 그 정도면 (운동은)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나머지 15년은 그냥 좀 소박하고 평범하게 살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 석사과정에 갈 생각이 있어서 대학에 들어간 건 아니었다. 대학교 4학년 졸업장이라도 좀 있어야지 뭔가 움직일 수 있었고 최소한 1년 정도는 쉬어야 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고문후유증이나 오랜 수감생활의 정신적 타격이 있었던 것이다. 학교에 가면 그나마 내가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 후배들과 되게 나이차이가 많으니까 굳이 그 문화에 뛰어들지 않아도 되고, 사회 속에 있는데 사회와 거리를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1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 역시 공부가 재밌더라. 그래서 석사에 들어갈 때 사실 저는 주제를 잡고 들어갔다. 석사논문과 박사논문이 저는 연결되어 있다. 왜 연결된 주제를 잡았냐면 그때도 소박하게 살려면 빨리 잡(job)을 잡아야 했다. 저는 나이가 많았다. 좀 효과적으로 내가 잘 쓸 수 있는 걸 굉장히 빨리 쓰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비정규직 문제가 너무나 무궁했다. 그게 저의 논문이다. 외국을 보면 사실 노동자정당이 국회에 진입을 하고 제1당이 되고 심지어 정권까지 갖게 되는 배경에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그 과정에서 힘을 받는 과정이 있다. 반면 한국은 완전한 후퇴가 시작되고 나서 정당이 들어갔다. 거기에 “노동운동의 정규화, 중심과 주변으로 나뉘었다는 것이 정당의 성격이나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그것이 우리의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가 나의 최대의 관심사였다. 그건 정말 실천하겠다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고, 단지 학문적인 관심사로 제한해놓고 있었다. 내가 이제 (주제와 관련해) 입증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이재열 교수님이 과에 들어오시고, 연결망이 부흥을 할 때였다. 이론수업을 듣다보니, 연결망을 가지고 (논문주제를) 입증을 해볼 수 있겠구나, 연결망을 통해 조직을 분석할 수 있겠구나 해서 연결망 분석을 가지고 지난 20년을 분석했다. (논문을) 워낙 빠르게 하다 보니 목에 디스크가 왔다. 이게 연결망 작업은 완전히 노가다인데다가 제가 자료와 문헌을 가지고 코딩을 하는 방식도 취했기 때문에 엄청난 노가다였다. 그리고 다른 조직만 해도 뭐 수천 개 이상이 되는 조직의 연결망 분석을 배우면서 빠르게 해야 했다. 내가 2005년 2월에 졸업을 했는데 2004년 12월에 논문심사에서 송호근 선생님이 무조건 통과시켜주겠다고 했다. 그 때 가장 빠르게 공체가 난 게 한국노동연구원이었다. 그래서 무조건 낸 거다 그냥. 나는 될 거라고 생각을 안했다. 전략을 짰다고 고민을 많이 했다. 노동연구원은 대부분 경제학자들이다. 그래서 딱 연결망 분석 파트만 가지고 갔다. 당시 한국에서는 굉장히 새롭고 섹시한 것이었다. 중위수준에서 분석을 가지고 전체 그림을 그려낸 논문이 당시에 한국에는 없어서 노동연구원이 굉장히 흥미로워했다.

편집자 학부 및 대학원을 다녔던 경험이 지금의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은수미 저는 교수들한테 사실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한 같이 있었던 후배들한테도 도움을 많이 받았다. 저처럼 오랫동안 학교에서 떨어져 있던 사람이 처음 석사과정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다. 처음에 영어 읽는 것도 낯선 거다. 그 당시 제가 있었던 사회학과 대학원생들은 지식을 가지고 유리알 유희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학문적 공동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말 테리다 땀에 미치겠더라. 하버마스나 라캉까지는 간신히 이해를 했는데. 정말 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결국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런데다가 또 그 당시 송호근 선생님 수업을 들었다. 그런 생각을 한 게 어쨌든 난 급진적인(radical) 이론은 많이 알지만 그렇지 않은 이론도 배우고 싶었다. 그런데 송 선생님 수업이 그 당시에 워낙 과제 양이 많고 이걸로 악명이 높아서 결국 세 명밖에 없는 거다. 그것도 나머지 두 후배를 내가 꼬셨다. 그러지 않으면 폐강이 될 테니까. 송 선생님이 그때 학습량을 한글 책을 빼고 일주일에 영어 페이퍼만 3~400페이지를 과제로 내주더라. 일주일 동안 2박 3일을 밤을 새고, 수업 전에 우리끼리 토론을 했다. 공부를 해서 각각의 주제로 메모를 쓰게 하고, 발제도 서로 나눠서 다 맡아서 하고, 그래서 그때 우리 세 명 별명이 노동전사였다. 노동사회학을 가지고 전사(戰死)를 한다고. (웃음). 그 수업 말고 또 하나 부담스러운, 시간강사님을 모신 수업이 있었는데 숨을 못 쉴 정도였다. 어쨌든 죽어라고 했던 것 같다. 그때도 월화수목금금금을 하루 서너 시간씩밖에 안자고 죽을 것처럼 공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게 한 석사 2년을 버티고 나니까 이제 물리가 트여서 알아들겠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들겠고 나도 약간은 유리알 유희를 할 거 같은 게, 손에서 이 개념도 좀 튕겨보고 저 개념도 생각을 해 보고, 노동의 현장을 해석하는 데도 사용을 해 보고, 그런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해온 거라고 보시면 된다.

그리고 사실 저는 논문의 과정이 정말 시대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일 거라 생각을 못했다.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치유과정이지 아니었나 싶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힐링이 필요했던 사람인데 그걸 누구한테도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그걸 감정적으로 드러내는 걸, 눈물 흘리고 이런 게 굉장히 싫었던 것 같다. 그런데 논문이란 건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니까, 객관적인 모습으로 나를 꺼내서 보고, 노동에 초점을 맞춰서 시대를 보게 되었다. 김진균 선생님, 송호근 선생님 두 분께 굉장히 고마웠고 거기에 열심히 지원을 해준 분이 이재열 선생님, 김우식 교수님 이런 분들이 참 많이 도와줬었다. 정말 많이 도와주셨었다. 그리고 제 친구들. 그래서 총 6년 만에 이걸 다 끝낼 수가 있었다. 난 원래 그것보다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편집자 청년 유니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청년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년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가?

은수미 전 세계적으로 청년이 심각한 문제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25세 이하까지는 최저임금 안 줘도 되는 예외 조치를 취한다. 그렇지만 외국의 경우, 유럽은 청년기를 넘어서서 중년기를 넘어서면 임금이

오르는 구조가 있다. 그런데 한국은 아니다. 우리 옛날 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아니다. 우리나라는 젊어서 고생하면 죽는다. 이는 청년의 눈높이가 높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나라 청년들 그 투자한 것에 비하면 정말 눈높이가 낮고 뛰어난 사람들이다. 고임금 고비용 때문에 경제 위기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실제로 경제 위기는 그것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 또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했다. 그래서 지금 59%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소득이 다 줄어드니까 가계부채, 빚을 내야 한다.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를 줄인다. 그래서 수출은 굉장히 잘 나가지만, 내수기업은 죽어도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일자리를 줄인다. 밥상에 다섯 명이 다섯 그릇이 원래 있었는데 두 그릇씩 먹을 수 있도록 하기는커녕 한 그릇을 빼는 거다. 그러면 다섯 명이 네 그릇을 가지고 나눠먹어야 하는데 이게 나눠먹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다. 정규직 이기주의의 이야기는 밥그릇이 빠졌다는 사실을 잘 안 보고 있는 거다. 그리고 밥상에 밥그릇이 다섯 그릇에서 네 그릇이 된 게 정규직 때문인가? 난 그렇지 않다고 본다. 아무도 입증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 이야기한다. 사실은 이윤 논리 때문에 그렇다. 이제는 이윤 중심 성장이 아니라 사회 성장 구조를 소득 중심 사회성장으로 가지 않으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사회성장 논리를 바꾸고 밥그릇을 늘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한다. 그중에 처음에 누구한테 한 그릇을 먼저 줄 건가? 이걸 청년하게 주어야 한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놀랍고 자랑스러운 청년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지금 일자리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다. 꿈을 꿀 수가 없다. 먹고사는 것에 치여서. 그래서 자유나 평등이나 정의나 혹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걸 생각할 여지가 없다. 제가 보기엔 여유가 없다. 그리고 취업공부는 공부가 아니다. 시민의 소양을 기르는 공부일 수가 없다. 20대,30대에게 미치라는 책이 정말 많다. 채테크에 미치라 학점에 미치라 뒤에 미치라 등. 그러지 않아도 미쳐 죽겠는 사람들에게 책마저 미치라고 하는 사회다. 그런데 미친다고 해도 해결방안이 없는 거다. 저는 그건 기성세대가 사회구조를 잘 못 만든 거고 저는 저 같은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우리 세대 사람들이 정말 할 만큼 했었다고 과거엔 생각을 했었다. 민주주의를 하고 그 정도쯤 뺀에서 썩으면 할 만큼 했지. 그런데 이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사회구조를 완전히 바꿔서 정말 똑똑하고 멋있는 이 젊은 친구들이 출추고 뛰놀 수 있고 다른 생각을 할 여유를 가져야 한다. 지금의 고통을 빨리 정부가 안고 정부가 해결을 하고 청년의 열정, 청춘의 파도 같은 걸 키워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40대 50대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리더가 될 텐데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나? 저는 20대 때에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매일 고민하고 매일 공부했던 것 같다. 지금도 “정의”같은 말에 가슴이 뛰다. 또 사람이 아름다운 게 참 좋다. 사람을 예뻐할 줄 아는 것도 20대 때의 경험이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한국사회로부터 축복을 받은 거라면 나의 후배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있어서는 이번 문재인 캠프에 들어간 것도 그렇고 환경노동위원회를 선택한 것도 그렇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래서 청년유니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 친구들하고 많이 만났다. 오늘도 1기 위원장인 김영경 위원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좋아하는 친구다. 스스로의 미래를 찾겠다는 사람들이 권리를 찾도록 지원하겠다.

편집자 SJM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중간보고서 발표를 했다. 쌍용차 사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은수미 쌍용차는 좀 더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에 쌍용차 회계조작 문제에 대한 보고를 할 거다. 그에 기초해서 쌍용차 소위를 어떻게든 추진할 생각이다. 그리고 정기국회 때 쌍용차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를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제조사 혹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공지영씨의 〈의자놀이〉등이 나오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계속 잊혀 가는 문제니까 계속 기억을 되살려 내야하고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도 해야 하는 등 끈질기게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정리하고 문제부터 원직복직하고 그리고 산업정책까지 관련된다. 그러면 원직복직해서 쌍용차가 운영이 될까, 이런 질문들을 다들 하게 된다. 이게 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한다. 대안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지만 설득할 수 있다. 외국자본이 빠져나간다면 국민기업을 만든다. 그러면 국민기업 만드는 건 좋은데 여지가 있나, 산업에서 이게 자기 시장을 가질 수 있는가 수준까지의 대안을 마련하고 전 꼭 해결할 거다. 쌍용차도 연관이 되지만 폭력 문제가 또 하나 있다. 이걸 정말 근절하고 싶다. 노사관계에서 다시는 이런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하나가 현대자동차 비정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세 가지를 다 보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워낙 SJM문제가 크게 터져가지고, 쌍용차 분들이 좀 서운해 하신다(웃음).

편집자 향후 국정활동의 목표가 있다면?

은수미 제가 4년의 의정 활동에서 적어도 노동권의 어떤 측면들을 조금 복원시키는 데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싶다. 그게 제가 의정 활동을 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다. 저는 노동권이 회복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정도로 민주주의가 후퇴한 이유가 청년들이 노동권을 몰라서 그런 것 같다. 내가 스펙 쌓는 것 이상으로 스펙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자기의 노동권이 시민의 권리로서 누리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일자리에서 그걸 전혀 누리지 못한다. SJM 용역에서 보듯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어서 만난다. 아니, 전경하고 시민으로 만나는 건 그래도 이해가 된다. 기업의 용역이고 기업의 노동자로서 이렇게 만나는 거다. 도대체 이 뒤에서 누가 웃고 있는 건가. 이렇게 용역으로 또, 아무런 권리 없는 노동자로서 폭행을 당하고 이게 반복되는 이런 2,30대의 삶을 끝내야 한다. 그래야 누군가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니까. 저는 어쨌든 저 같은 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길을 닦는 일이라고 본다. 길을 놓고 길을 닦고 또 누군가 그 길을 다시 건너서 죽어가는 민주시민을 살리는 거다. 안 된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 일이다.

동문으로부터 온 편지 1 | 문은미

문은미 (Robert E. Keiter 1957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of Sociology, Amherst College)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만
끝내는 사람은 적은
지난한 박사과정을
끝까지 마치는 데에는
유창한 영어실력보다
자신의 질문에 대한 이해와
그 질문에 대답하고자하는
의지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4년동안 사회학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사회학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 졸업식날 학과행사에서 졸업생 한 명이 한 말입니다. 다들 웃었지만, 사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교수님들과 학부모님들은 약간 당황을, 졸업생들은 어느정도 공감을 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지금만큼 심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졸업했던 2002 년에도 ‘어떤 기술을 배우는가, 그리고 ‘그 기술로 어디에 취직이 가능한가’에 따라 대학교육이 정의되던 때라, 사회학이 가르치는 기술-혹은 사회학을 배우면 정확히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한 물음표는 늘 따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석사과정에 진학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던 저는 속시원히 그 질문에 대답할 수없는게 조금은 부끄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졸업을 하고 1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알수 없는 (!) 사회학이 저를 비롯한 많은 학우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대학 4년이후에도 석사, 박사과정까지 사회학 공부를 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사회학과의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학부에서는 사회학의 여러 토픽들을 자유롭게 공부했다면, 석사과정에서는 조금은 딱딱한 사회학 (사회학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해주는 이론과 방법론)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성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저는 직장여성과 남성이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느끼는 갈등과 스트레스의 차이에 대한 연구로 석사논문을 쓰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에 진학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와 다들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 오게 된 기쁨으로 시작했던 박사과정은 만만하지 않았고, 때때로 내가 이 과정을 마칠 수 있을까하는 걱정에서 달리기도 했지만, 마지막까지 저를 이끌었던 것은 처음 사회학을 배우면서 제가 가졌던 ‘사회는 변하는데 왜 남녀 불평등은 계속 유지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만 끝내는 사람은 적은 지난한 박사과정을 끝까지 마치는 데에는 유창한 영어실력보다 자신의 질문에 대한 이해와 그 질문에 대답하고자하는 의지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온 것을 시작으로, 사회학과를 졸업한 많은 학우들처럼 저도 용감한 결정을 몇 가지 하게 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일본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을 잘 아는 것도 아니었고 일본어도 못했는데, 미국에 와서 우연찮은 기회에 시작하게 된 일본 연구가 이제는 제 관심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하버드에서 영어로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에 가서 처음보는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다양한 문화 안에서 제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한국 등 세 나라에서의 경험은, 한 편으로는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고, 다른 한 편으로는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은 배우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미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저는 작년에 왜 일본에서 고용기회균등법이 여성의 고용기회 창출에 실패했는지에 대한 박사학위논문(영문 제목: Organizational Reproduction of Gender Inequality: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Law and Women’s Employment in Japan, 1986-2009)을 제출하였고, 그 관심을 발전시켜 일본의 출산 및 육아

정책의 효과, 1992년 버블경제 이후 일본의 고용 시스템 변화가 여성고용에 미친 영향, 저출산 국가들 간의 비교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끝날 것 같지 않던 7년간의 박사과정을 마치고 저는 지금 미국의 앰허스트 칼리지(Amherst College)에서 교수로서 처음하는 강의를 준비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학생으로 지내다 막상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니 새삼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처음 사회학을 접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배운 사회학은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저는 질문을 얻었고, 또 그 질문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에서 저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저도 제가 가르치게 될 학생들이 사회학을 통해 오랫동안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얻게 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가지게 되고 또 동시에 자신과는 다른 의견을 이해해 나가길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사회학을 배운 사람들이기에 사회학과 동문 여러분과의 만남이 기대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멀리 있지만 언젠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그 날을 기다려 봅니다.

동문으로부터 온 편지 2 | 김재우

김재우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는 수십년동안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진행된 인간 사회의 협동에 관한 연구들에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재우입니다.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나마 만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전북대학교 사회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는 처음에 자연과학도의 길을 선택했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일본 대중과학도서 시리즈를 통해

신기한 물리와 화학 현상에 관심을 가지면서 1993년 서울대 화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중산층 가정에서 어려움 없이 자란 저는 입학 직후 봉천동을 비롯한 서울 시내 달동네에서 빈곤에 가해지는 폭력과 구조적 모순을 목도하면서 뒤늦게 성장통을 겪었습니다. 20년 넘게 재개발지역 현장연구에 열정을 바쳐온 조은 선생님의 초기 연구서 [도시빈민의 삶과 공간](서울대출판부)을 공대 붉은광장에서 읽었던 것이 3학년 겨울로 기억됩니다. 4학년 1학기까지 줄곧 학회 및 동아리, 학생회 활동 등에 매진하여 권총(F)을 차고 활(D)을 쏘다가 제대 이후에야 화학의 묘미를 느끼게 되었지만,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성찰적으로 다루는 학문을 탐구하고자 2001년 사회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했습니다. 경제민주주의 이론과 실천에 관심이 많았고 제 석사논문은 스웨덴 복지동맹과 연금개혁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였지만, 대학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환이론을 비롯한 연대(solidarity)에 대한 사회이론들, 사회심리학, 연결망 분석에 대한 흥미도 키워 나갔습니다.

2004년 9월 리버사이드 소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 Riverside) - 글로벌 도시 LA에 근접해 있으며, 미국에서 인종적 계층적으로 가장 다원화된 대학교

중 하나 - 에서 공부를 시작하여 2010년 6월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사실 저는 과에서 사회학도로서 비주류의 길을 자청했습니다. 다른 교수들에게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친숙한 화두를 꺼내며 제 박사논문이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가 될 것이라고 안심시킨 다음,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초점을 맞춰 협동의 사회심리적 기제와 구조적 기반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하겠다고 지도교수 Robert Hanneman(2010년 미국사회학회 Mathematical Sociology 분과장)를 설득했습니다. [사회학 이론의 구조] 저자인 Jonathan Turner와 [거시사회학] 저자인 Stephen Sanderson에게 진화사회학 연구자가 어떻게 진화게임이론을 모를 수 있냐며 가르치려고 들다가 매우 불편한 관계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더 큰 사태는 논문자격시험이었습니다. 경제 조직과 제도 분야에서는 행동경제학, 복잡계이론, 사회적 딜레마, 신체도주의와 게임이론, 연결망 위에서의 진화게임, 한편 사회심리학에서는 - 정체성 통제 이론(identity control theory)의 대가 앞에서 그 대신 - ‘우리’와 ‘그들’ 구별짓기, 내집단편애와 관련된 사회정체성 이론 및 유유상종, 집단사고 등 다양한 집단역학에 대한 가상사회를 통한 탐구 위주로 시험문제를 내달라고 주장함으로써 두 번 모두 교수들과 심각하게 대립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는 수십년동안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진행된 인간 사회의 협동에 관한 연구들에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일본은 사회 규범과 제도의 진화, 비교제도분석을 융복합적으로 연구하는 선도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Toshio Yamagishi는 1990년대부터 신뢰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비교 실험으로 국제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가 설립한 Hokkaido University의 ‘사회과학 실험연구 센터’는 창의적인 작업들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Yoshimichi Sato(현재 미국사회학회 Rationality and Society분과장 및 국제사회학회 집행위원)가 소장으로 있는, 제가 1년 9개월동안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Tohoku University의 ‘사회계층 및 불평등 연구소’에서도 학제간 조사연구들이 교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신뢰 및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들이 이론적으로 사회학뿐만 아니라 (사회)생물학, (진화)심리학, 뇌과학, (경제)인류학,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 등에 걸쳐져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또한 설문조사연구 및 실험실 연구 뿐만 아니라 수리모형, 컴퓨터 모의실험, 현장실험(field experiment), 웹실험(web experiment) 등 다양한 분석방법을 활용하는 학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수년간 넓은 의미에서 ‘사회동학(social dynamics)’에 대한 학제간 연구 흐름들이 미국과 유럽, 일본의 주요 대학과 연구소들에서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 중 하나인 컴퓨터를 활용한 사회과학(CSS computational social science)이라는 분야가 우리나라에서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복잡계 네트워크(COREN)’의 활동과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주도의 웹과학(web science) 관련 연구는 언론과 학계로부터 꾸준한 관심을 받으며 축적되고 있습니다. 복잡계로서의 (네트워크) 사회를 분석하는데 있어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기법이나 행위자 기반 모형(agent-based model)을 통한 시뮬레이션이 활용될 수 있으며, 후자처럼 SNS(social networking services)가 제공하는 대량의 자료들을 직접 다룰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의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는 웹실험은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접근임에 틀림 없습니다. CSS와 관련하여 당신은 화학과를 다녔으니까 프로그래밍에 익숙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자주 받는데, 제가 독학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초등학교 서바이벌 영어 수준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제가 평생 배우고 싶은 것은 분석방법 자체라기보다 사회구조와 과정을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입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인용빈도가 높은 Granovetter의 논문에 등장한 ‘약한 연결관계의 강함’이라는 아이디어는 수소결합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라 하는데, 그가 화학을 복수전공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 초 일본에서 KBS의 ‘사회적 자본 프로젝트’ 3부작을 시청하면서, 그와 같은 최신 학제간 이슈와 연구성과들에 대한 대중적 소개가 매우 반가웠습니다. 나중에 들은 더욱 흐뭇했던 사실은 기획PD 중 한 명이 사회학과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예들이 다전공 및 융복합적 사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필요한 사회학적 상상력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발전기금 출연 및 약정현황과 사용내역

아래는 2012년 1월 이래 현재 사회학과 발전기금 출연 및 약정 현황과 사용내역이다. 발전기금은 장학금과 학술행사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해당 장학금의 수혜를 받은 학생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이재열 학과장은 “발전기금을 출연한 분들 및 기관들에 감사드린다. 발전기금이 다양한 곳에 유익하게 쓰이는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출연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발전기금 출연 및 약정현황 (2012년 2월~8월)

출연자명	출연금액	출연일자	본교관계	비고
이전 출연금액계	470,250,000			
정근식(약정)	5,000,000	2012-05-17	교수	
김홍중(약정)	3,000,000	2012-05-22	교수	
박경숙(약정)	3,000,000	2012-05-22	교수	
정일균(약정)	3,000,000	2012-05-23	교수	
이재열(약정)	10,000,000	2012-05-29	교수	
서이종(약정)	5,000,000	2012-06-06	교수	
한신갑(약정)	3,000,000	2012-06-19	교수	
송호근(약정)	13,000,000	2012-06-20	교수	
배은경(약정)	3,000,000	2012-06-21	교수	
홍두승(약정)	10,000,000	2012-06-25	교수	
장경섭(약정)	5,000,000	2012-07-04	교수	
박명규(약정)	10,000,000	2012-07-06	교수	
임현진(출연)	15,000,000	2012-07-13	교수	1996년 15,000,000 출연
정진성(약정)	10,000,000	2012-07-13	교수	
합 계	561,050,000			

발전기금 사용내역 (2012년도)

[대학, 대학원 연구 활동비]

[장학금]

- 학과홈페이지: 류연미(석사 · 12)
- TF 장학금: 양진선(석사 · 11)
- 학과소식지: 박귀병(석사 · 10)
- Proof Reader 장학금: 안종석(석사 · 11), 윤다인(석사 · 11)

[학술 및 학과활동지원비]

- 전공연수회
- 제 5회 서울대학교-큐슈대학교 국제학술교류 워크숍
〈기억과 표상으로 읽는 동아시아의 20세기〉
- 서울대-동경대 사회학과 정기학술포럼
- 2012년 대만대 동아시아 주니어 워크샵

DEPARTMENT OF SOCIOLOGY SNU NEWSLETTER



| vol. 10 | 2012학년도 2학기

발행인 이재열

편집인 박귀병

발행일 2012년 8월 29일

Homepage. <http://sociology.snu.ac.kr>

Tel. 02-880-6401

디자인 아트디자인플레이스 _ reica07@hanmail.net

서울대 사회학과 소식지